

철학자들, 법정에서 '도덕적 딜레마'를 풀다

행복한 책 읽기

조용헌 '백가행' (디자인 하우스 펴)

누구를 구할 것인가?

토머스 캐스카트 지음

“시택 식구와 내가 함께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할 것인가”라며 되묻는 아내의 하나 마나 한 질문에 철학이 담겨 있을 까. ‘철학개그 콘서트’의 저자 토머스 캐스카트의 신간 ‘누구를 구할 것인가?’는 이 흔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분위기를 바꿨다. 새로운 질문을 해보자. 저자는 에두르지 않는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 앞에 다섯 명이 서 있다. 기관사는 선로를 유지해 다섯 명을 치어 죽일 수 있고, 다른 선로로 틀어 그곳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숨지게 할 수 있다. 저자는 묻는다. 당신이라면?



칸트·니체·벤담·아퀴나스·피터 싱어

쟁쟁한 철학자들이 펼치는

‘트롤리 문제’의 흥미진진 법정소송

또 같은 상황에 육교에 서 있는 당신이 뚱뚱한 사람을 떨어뜨려 전차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통보를 죽일 것인가, 아님 다섯 명이 기차에 치이는 꼴을 볼 것인가.

책 속의 딜레마는 ‘의사가 한 사람을 죽여 혈정을 뽑아내면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며 한 발 더 나아가 ‘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가’라며 진화한다.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이들 질문에는 철학

적 성찰이 담겨 있다.

저자는 칸트, 니체, 벤담, 아퀴나스, 피터 싱어 등 쟁쟁한 철학자들을 만나며 ‘윤리적 판단’을 함께해 보기를 권한다.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에서 첫 토론 주제로 삼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전차 앞 다섯 명의 상황이 담긴 ‘트롤리 문제’는 1967년 영국 철학자 필리파 풋이 고안했다.

이 책은 법정 소송이라는 형식을 빌

려 이 딜레마에 담긴 철학을 이야기해 준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행복해지는 것이 좋다”던 제러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타인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이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등이 거론된다.

비록 이들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미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책은 철학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끄는 마력이 있다. 또 이 딜레마를 사견해 해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형식을 빌려 읽는 재미를 더했다. ‘말이 알면 쉽게 쓴다’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철학 용어를 담아내는 저자의 문체 또한 부드럽다.

<문학동네·1만2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인재 쇼크=한 기업에 얼마이지 않은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이 인재를 유지한 기업과 유출한 기업 모두에서 혁신을 낳는다는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다. 저자는 법, 경제, 심리, 경영학을 연계하여 전 세계의 기업, 정치, 문화계에 나타나는 실제 사례들, 즉 페이스북에서 구글, 코카콜라, 인텔, 제트블루항공, 마텔에 이르기까지 인재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특별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싱크·1만8800원>

▲우주비행사의 지구생활 안내서=캐나다 출신 우주비행사 크리스 해드필드. 책은 그가 아홉 살에 품은 ‘우주비행사’라는 불가능한 꿈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도전의 여정을 그리는 동시에, 우주비행사의 일상과 우주탐사 프로젝트의 실제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줄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그의 생생하고 신선한 통찰을



따라가노라면, 우주비행사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지구에서의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더퀘스트·1만4500원>

▲궁궐의 우리 나무=서울 한복판 궁궐에서 나무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궁궐의 우리 나무’ 개정판. 기존 책에 비해 20종에 가까운 나무들이 추가되었고 분량도 100쪽 이상 늘어났다. 책과 함께라면 궁궐 곳곳에 자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 114종을 상세한 지도와 함께 직접 찾아가 만나보는 것은 물론, 풍부한 참고 사진과 쉽게 풀어

쓴 글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쉽게 나무와 친해질 수 있다.

<놀와·3만원>

▲숨어 있는 한국 현대사=‘혈의 누’의 작가 이인직은 이완용의 비서로 나라 팔아먹기에 앞장선 악질 매국노였다? 고종 황제는 배이정으로 망명을 시도했다? 독립군을 때려잡던 조선인 부대가 있었다? ‘요절한 천재’ 전혜린의 아버지가 백범 김구 암살을 지휘했다?... 옛이야기처럼 술술 읽히는 재미있는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 28편. 일제 강점기에서 한국전쟁까지, 격동의 20세기 대한민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펼쳐진다. <인문서원·1만6000원>

어린이 책

▲복숭아 한번 실컷 먹고 싶다=제1회 이오덕 동요제에 보내온 어린이 시를 모아 시집으로 엮었다.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친구 사이는 어떤지, 오가는 길에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같은 이야기들이 아이들 시 속에 날날이 담겨 있다. 동요제 무대에 올랐던 노래를 담은 시노래 음반도 함께 나왔다.

<보리·각 1만원, 1만5000원>



▲이빠 너무 이빠=시인 신현림이 처음으로 직접 그리고 쓴 유아그림책. 이 땅의 모든 엄마들처럼 저자도 아이를 키우며 수

많은 시간을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행복을 느꼈고, 그 감정과 느낌을 고스란히 살려가며 수년에 걸쳐 공들여 그린 수채화 풍의 그림들이 책 가득 펼쳐진다.

<보라·9000원>

▲지구를 깨우는 화산과 지진=아름다운 자연경관에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물질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탄생시킨 화산에 대해 다뤘다. 역사를 바꾼 세계의 화산, 지구를 창조하는 화산, 좋은 화산·나쁜 화산·이상한 화산, 지구를 흔드

는 지진, 대륙이 이동한다. 지진과 해일로 부터 살아남기까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아이앤북·1만2000원>

▲강이의 꽃밭=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김효진 작가의 어렸을 적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진솔한 이야기. 70년대를 배경으로 장애를 가졌지만 밝고 힘차게 생활하는 여자아이 강이를 통해, 장애와 함께 생활하는 것의 불편함, 그리고 아이가 갖는 마음속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파란자전거·8900원>

위로와 휴식은 집 안에 있다

백가행을 다니면서 큰집, 작은집, 부잣집, 가난한집, 산골짜기 집, 도시에 있는 집, 오두막집, 혹은 아파트까지 불만만 집들을 소개하고 고수들에게서 얻은 관점을 투영시켰다. 여기에서 ‘백’은 숫자를 생각하면 오산이다.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가까운 집을 보면 형세가 예사롭지 않다. 동양 사상에서 풍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풍수학이 내린 결론은 바로 명당인데 명당을 찾아서 집을 짓고 살면 된다. 명당이란 일단 거기에 살면 사람이 건강해져야 한다. 그 다음은 영성이라는 것인데 영성이 받아들일수록 자유가 확대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명당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먼저 잠을 자 봐야 안다. 숙면을 취하고 난 후 몸이 가벼우면 그 자리가 바로 명당이라는 것이다. 선몽도 명당을 찾는 한 방법일 수 있다는데 해몽하기에 달렸다.

이 책에 나온 보통 사람의 토종 정원인 나무의 죽절현, 장성 축령산에 도공이 지은 생각이 커지는 한 칸 오두막집, 판소리의 고장인 전주 학인당, 양평 건축가의 땅 집, 진주의 의로운 부잣집인 고택, 담양 무월리 도예가의 집, 그리고 저자의 집인 장성 축령산 자락에 있는 휴휴산 방 등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까지 고스란히 담아냈다.

결국 저자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집’의 의미와 ‘위로와 휴식은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다’는 가내주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끝으로 고요하다 못해 적요한 이성신 시인의 강호가도를 읊조려본다.

“동은 햇살로/문을 받았다//서는 산 그림자로/병풍을 쳤다//그 안에/나초 한 잎//없는 바람에도/된다.”



안영옥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www.cjhellovision.com